

# 지구환경을 지키자

## 연재 I

현재 지구환경은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다. 금년들어 그 인식은 세계적으로 고조되어가고 있지만 복잡한 문제들에 부딪혀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곤란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는 년간기획「지구환경을 지키자」는 특집시리즈에서 미국·유럽 시민단체의 활발한 최신동향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註)

### 1

백악관과 의회를 중심으로 각국 대사관, 로비스트의 사무소가 모여있는 미국의 정치중심지, 수도 워싱턴에는 환경단체의 거리가 있다.

여기에는 전미국의 약150개 주요환경단체중 약 1/3에 해당하는50개 단체가 모여있다.

백악관에서 도보로 2-3분거리에 미술관등이 연이어 있으며 고급빌딩에서 환경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두뇌집단(Think Tank)의 「세계자원연구소(WRI)」를 방문하였다.

돈나.와이스 정책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WRI는 1981년 제임스.스페스 소장등 3인이 설립한 자주독립, 비연합민간 비영리회사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WRI는 활동자금의 2/3는 미국재단에서, 나머지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등의 각국정부나 국제기관에서 모으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시기와 맞추어서 연이은연구 프로젝트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직원이 85명에 달하고 있다.

년간 예산은 1989년에 약 43만달러, 자산은 약3,200만 달러에달한다.

“WRI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열대우림문제의 선구자가 된「열대우림 행동계획」을 만든 것이고, 세계각국의 정책담당자, 저널리스트가 인용하는 자료책자「세계자원」도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와이스 부장은 자랑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서서히 각국정부로부터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금년은 일본정부가 UNEP(유엔환경계획)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9월11일부터 개최되었던「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동경회의」에서 토론된 각종 정책론의 기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 산성비의 피해를 입은 미셀산 (미국 로스켄로니아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WRI의 연구원.

즉, 세계의 유명인사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주최측 대신 두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워싱턴에는 이러한 성격의 민간연구기관으로서 WILDWOOD연구소(WWI)가 있다.

와이스부장은 "WILDWOOD는 자기주의를 주장하는 단체, WRI는 가장 객관적,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며 정책제언도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미묘하게 성격이 다른 환경연구기관이 공존하고 있는 사실은 그만큼 층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환경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여 로비활동이나 소송을 일으키는 단체도 많은만큼 강력한POWER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전형적인 예로는 부시정권에 환경보호청장으로 취임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미국위원회의 윌리엄 라이리 전회장(45)을 들 수 있다.

민간의 자연보호단체 임원이 돌연 환경청 장관으로 영입된 예는 일본에서도 아직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 2

초고층빌딩이 줄지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가, 여기서부터 울퉁불퉁한길을 차로 10분정도 서쪽으로 달리면 엷은 갈색과 녹색이 잘조화된 4층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지구의 대자연을 지키기위해 1892년에 창립된 미국유수의 환경보호단체「시에라 클럽」의 건물이다.

이클럽은 미국전역에 57개지부를 가지고 있고, 회원수는50만명이 넘는다.

이번 이사(전회장)가 임회했던 50년전에는 불과 3,000명 정도였지만, 회장으로 취임한 1961년에는 16,500명으로, 80년에는 20만명으로 증가하여, 9년사이에 2,5배나 증가하였다.

### -회원의 의견사항-

웨이번이사는 "풀뿌리 조직으로 회원의 의견을 상징하는「하의상달」방식채택이 시에라클럽의 첫번째 특징"이라고 자랑한다.

회원의 년회비는 33달러, 이수입이 시에라클럽의 88년 세입2,900만 달러의 4%를 점한다. 그리고 기부금35%, 서적출판이익금10%정도라고 한다. 하이킹이 취미로 작년, 하와이지부에 입회한 자드세디셔(36)는 5월, 미국사상최대의 원유유출사고를 일으켰던 알래스카에 회원4명과 함께 급파, 알

래스카의 슈마드에서 바다표범과 바다새를 씻기는 작업을 했다.

사고를 일으킨 역손사는「기상이 악화되었다」라는 이유로 9월15일에 유출원유제거작업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시에라클럽등의 환경보호단체는 8월23일에 작업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알래스카주정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수년전에 차를팔고, 지하철로 통근을한다는 손.홀드구로씨(52)는 도시계획가로 대량수송 등 에너지효과가 좋은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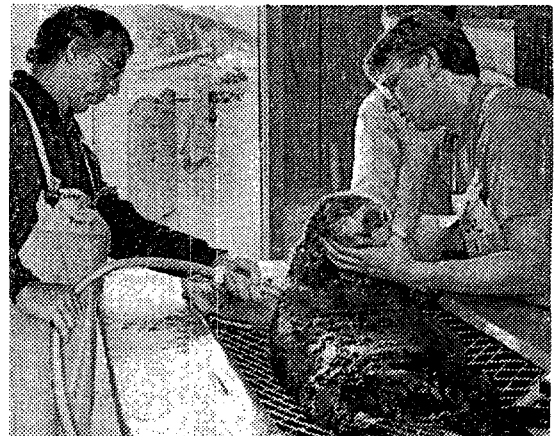
### - 전미국에 약400개 환경보호단체 -

50만명이 넘었기때문에 회원의 구성과 운동도 확대되었고 영향력도커졌다. 선거시에는 공화당, 민주당에 구애됨이 없이 환경문제를 이해하는 하원의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지원한다.

또, 당선후에도 환경문제에 어떻게대응을 하는가?를 살펴 이것을 뉴스로 보고한다.

미국에서는 시에라클럽외에도 Audubon협회, 원생자연협회, 야생생물연맹등 수십만단위의 회원을 가진 보호단체가 많다. 이연맹이 발행하고 있는 전국조직의 보호단체년감에는 소규모의 단체도 들어있는데 전미국에 약400개의 환경보호단체가 등록되어있다. 일본 인구의 2,5배, GNP2배인 미국.

미국 시민들은 일본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큰 돈을 내고 모여서 자원활동을 전개.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



▲ 알래스카의 사상최대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기름투성이 된 바다표범을 씻기고 있는 시에라 클럽회원들.